

보도설명자료

(’23. 3. 7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
수요 대비 충분한 상황임

(3.7일 동아일보 「“RE100 기준 못맞춰 수출길 막힐수도” 재생에너지
목표치 하향에 업체들 한숨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보도 내용

- 국내서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없어 해외에서 사와야할 판
 -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체 발전량의 10%에 미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 우려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 대비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
충분한 상황임
 - RE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%를 재생에너지로
조달하겠다는 캠페인으로,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재생에너지
100% 목표시점을 2040~2050년으로 설정하고 있음
 - 이에 27개 RE100기업들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의 '22년 전체 재생
에너지 구입(수요)량은 6.3TWh로, '22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
45.9TWh(잠정)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,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
구매여력은 충분한 상황임

- 또한, 정부는 RE100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'21년 7.5%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을 '30년 21.6%, '36년에는 30.6% 수준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, 향후 추가적인 RE100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도 RE100 이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

□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를 비용효율적으로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,

- 민간주도 투자(PPA, 자가용)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, RE100 전용 펀드 조성,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, 이행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

※ 문의 : 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(044-203-5360) / 김범수 서기관(5361)